

『지방행정연구』지의 게재논문 분석(1986-2014)을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연구동향 분석

The Research Trends of Papers in the Fields of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in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1986-2014)

김 건 위* · 최 인 수** · 전 대 욱***

Kim, Kun-Wee · Choi, In-Su · Jeon, Dae Uk

■ 목 차 ■

- I. 서론
- II.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의 성격과 분석 방법
- III. 『지방행정연구』지 게재논문의 내용과 특성
- IV. 결론

본 연구는 1986년 창간 이후 현재 100호를 발간한 『지방행정연구』지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의 내용과 성격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동향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동 분야의 학문적 의미와 위상, 관련된 거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이러한 흐름 하에서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분석은 지난 1호부터 99호까지 게재된 총 902편의 논문 전수를 대상으로 기간별 게재동향과 연구분야의 분포, 키워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행정의 환경변화 따라 IMF 및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게재편수와 공동연구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와 더불어 많은 연구가 순수 이론적인 내용 보다는 시사성있는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정책연구가 확대되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에 있어서 국내의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방행정의 일정 분야에 대한 편중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지방3.0지원센터 수석연구원(주저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안전통일연구센터 수석연구원(공동저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조사부장·수석연구원(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5. 3. 12, 심사기간(1차): 2015. 3. 12~2015. 3. 23, 게재확정일: 2015. 3. 23

가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의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향후 선도적인 학술지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섭적이고 차별화된 연구논문을 장려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 주제어: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론, 지방행정학, 연구동향 분석, 정책분야별 분석, 키워드 분석

This study aims at finding trends of research and policy studie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with analyzing all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KLAR) during 1986–2014, from the first to the 99th issues of the journal. The authors first refer to review and trend-analysis papers published in some of academic journals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authoritative in the fields of study so as to explain macroscopic trends of research in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the analyses of this study. The authors moreover categorize all the 902 papers published in the *KLAR* by time period, authorship, article types, main topics, and keywords to explain key features and dynamics of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in Korea. The results imply that the *KLAR* has contributed and played in a leading role in the field of policy study evidently since the beginning of 2000's when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alized again in Korea and the policy studies and relevant coworking papers drastically increased, and also that the *KLAR* currently needs to endeavor to encourage more wide and specialized area of research so as to avoid narrow focuses of current research papers and to maintain the current lead and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study.

□ Keywords: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local autonomy, local administration, research trends, areas of policy studies, keyword analysis

I. 서론

지방행정연구 100호를 맞이하여 그간 추진되었던 지방행정 전반의 학문적 본질과 특성, 경향성 등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지방행정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전망과 제언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과거의 축적된 연구논문들에 대한 분야별 분석과 학술연구의 경향성을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분야에 있어서 미래의 학술적 발전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짧은 학문적 역사와 연구대상 및 방법론상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하나의 학문분야(a discipline)로 자리 잡은 지방자치론과 지방행정학의 견지에서 과거에 대한 자기 성찰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분야를 전담하는 본 연구지가 통권 100호를 맞이하였다는 사실은 상기와 같은 분야가 학술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를 연구하는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가 학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더욱 많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론과 지방행정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동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지를 중심으로 이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진단·공유하며, 현재까지의 지방행정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회고하고 향후 방향을 조망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반 세기동안 한국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학계에서 축적해 온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시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지역 및 국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여 왔는가를 회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향후의 노력이 무엇인가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동 연구지가 창간된 이래 1호부터 99호까지 발표된 902편의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의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¹⁾ 구체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연구분야, 주제어 및 실제적인 적용분야 등을 분석하여 발표된 논문의 세부적인 분야와 연구경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2장에서 우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에 대한 개념적 고찰로서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등장배경과 성장과정 등을 요약하며,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분

1) 이 글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데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은경 객원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석을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한다. 아울러 3장에서는 지방행정연구지에 수록된 총 902편의 게재논문 전수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특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시대별 분포 및 논문성격별 분포를, 2절에서는 공동연구자에 관한 동향분석을 제시한다. 또한 3절에서는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정책분야별 게재논문별, 4절에서는 논문주제별 분포를 제시하고 그 트렌드의 분석을 제시한다. 5절에서는 지방행정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핵심주제어(keywords)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지방행정연구지의 동향분석 결과를 정리함과 동시에 본 논문의 의의 및 한계,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의 성격과 분석 방법

1. 지방자치론과 지방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 학술적 분야로서의 인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지방자치론의 관점에서 지방행정, 특히 도시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이유는 근본적으로 도시가 한 나라의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중요성 등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 내지 도시행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행정이원론(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에 따라 행정을 정치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한 기술과정으로 파악한 능률행정학(기술적 행정학)은 행정·관리동질론에 입각하여 행정과 기업경영의 동질성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Wilson, 1953: 65-75),²⁾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이나 자치단체의 행정도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행정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도 사기업경영의 이념인 능률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그쳤던 것으로만 이해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행정에 관한 1910년의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Economy and

2) Wilson은 행정은 분야는 경영의 분야이며, 정치의 고유영역 밖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행정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고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 밖에 유사한 견해를 가진 학자로는 William F. Willoughby, Leonard D. White, Luther Gulick 등이 있다.

Efficiency)와 지방행정에 관한 1906년의 '뉴욕시 도시조사국'(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행정의 관심이 능률성과 합리성을 증진하는데 불과했던 20세기 초기에는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을 행정학으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95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 및 도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도시의 사회구조 및 산업이 복잡화·다기화 되었고 한편으로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편 도시화 추세는 농촌을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파생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행정을 과거와 같이 능률성·합리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학문성 논쟁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과연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가? 만약 성립될 수 있다면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며 성립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또한 지방자치론 그리고·혹은 지방행정학이 행정학의 체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라는 일련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분야를 포괄하여 지방행정학(the science of local government)또는 도시행정학(the science of municipal government, Kommunalwissenschaf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연구는 그간 많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과학적 방법은 일정한 수의 가설과 원칙(assumption and principle)으로 특성화되어 진다. 지방행정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지방행정이란 표현을 검토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해답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학문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학적 원칙을 표시하는 것이다.

Isaak(1981: 23-31; 51-66)에 의하면 하나의 학문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일정의 유형의 결정론(determinism)이나 보편적 인과법칙(law of universal causation)을 전제로 해야 하고, 둘째, 경험적 명제(empirical proposition)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셋째, 체제적 성격(systemic nature)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은 경험적 일반화(generalization)를 구성하고 검증하며, 체제이론(system theory)을 발전시키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설명하며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Dyke(1978: 191-195)는 학문에 관한 정의의 공통요소로서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체제(system) 및 일반성(generality)을 들고 있다.

3) 연구대상의 특수성

행정학 연구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진다.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첫째로 지방자치 혹은 지방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한 인식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로 그 인식대상에 대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혹은 지방행정의 특수한 인식대상은 다음과 같다(정세욱, 1994: 46-47). 첫째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주민의 관계를 그 주요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론과 지방행정학은 행정학에서 다루지 않은 지방선거, 주민의 정치의식, 주민의 행정참여, 주민조직, 민중통제(popular control) 등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특수성은 지방행정학의 발달이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분야 및 비권력적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국가행정은 성질상 국가의 존립·유지에 관련된 분야,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을 요하는 분야, 권력적·통제적 분야,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분야와 같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국민 전체의 이해에 관련되는 분야와 권력적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비하여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와 비권력적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은 그 담당하는 분야와 대상이 상이하므로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도 달라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지역과 주민을 대상을 그 특수성과 개별성의 관점에서 인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중앙정부가 행정사무처리의 능률성·합리성의 관점에서 전국적·획일적으로 획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토착민들에 의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범위인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생활권을 이루는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인 능률성의 요구만을 고려하여 그 구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로, 지방행정을 지방정치와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연구하며 지방정부 형태도 특수한 점이 다르다. 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는 정치작용과 행정작용이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연구는 행정학에서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도 그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으로 귀속시키는 의회형(parliamentary system)과 위원회형(commission form)을 채택할 때에는 지방행정에서 지방정치를 거의 분리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네 가지의 특수한 인식대상은 일반행정의 연구로부터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론 혹은 지방행정학은 그 특수한 대상을 깊이 연구하여 학문으로서의 독자적인 체계와 방법론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선행연구 및 분석 자료³⁾

1) 미국 행정학의 경향

국외에서 학술지 분석 연구는 일찍이 행정학 전문지인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AR)가 가장 먼저 나타났으며 논문의 분량도 많지 않았다. 이외에 Administration & Society(A&S),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PAQ), Administration Science Quarterly(ASQ) 등을 대상으로 국내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Perry & Kraemer(1986: 215-226)는 PAR를 대상으로 1975-1984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89편을 주제(subject matter), 연구비지원(source of reserch support), 연구단계(research stage), 접근방법(general research approach), 실증적 분석방법(method of empirical analysis)의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주제에서는 공공정책이 51편, 연구비 지원이 없는 논문은 238편, 연구단계는 문제제기가 108편, 접근방법은 실증적 분석이 151편, 경험적 분석방법은 비실증적 논문이 138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는 Stallings & Ferris(1988: 580-587)도 PAR을 대상으로 1940-1984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45년동안 행정학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접근방법, 연구설계, 논문주제(정책-관리), 정부수준(연방-주-지방), 연구자의 특성(순수-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9개의 기간 중에서 지방과 연방수준의 연구와 연구비지원논문 경향을 제외하고는 시기별로 유의미한 변화차이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른 연구가 여러 개가 있지만 Newland(2000: 20-38)가 행정학의 연구방법과 경향을 위주로 PAR과 ASPA 양대 학술지의 경쟁상황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논의를 하였다. 즉 이론과 실제의 연계문제와 그 방안에 대해 PAR과 ASPA는 약간의 경향차이는 있으나 행정의 세계화와 지방화로 인한 도전상황에 대해 양대 학술지는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Strib & Roch(2005)는 미국 행정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여러 연구를 종합, 정리하면서 미국 행정학의 주요 과제로 연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의 부족, 연구지원금의 부족, 행정학 교육에서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인한 연구의 중요성 저하, 박사학위 논문의 낮은 질, 박사과

3)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을 별도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를 포괄하는 행정학의 경향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정 교육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또한 행정학 연구의 세 가지 딜레마로 이론지향적 연구와 문제지향적 연구간의 논쟁, 연구방법론간의 논쟁, 행정학의 연구가 학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실무자들의 수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논의하였다.

상기 연구외에 다른 연구를 참고하면 미국 행정학의 경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연구영역의 관심분포 변화와 방법론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들과 3-10년간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최신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 기고자의 특성에 집중한 연구, 학술지 편집자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학술지의 등급을 평가한 연구 등이 존재한다.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연구성격, 주제, 제1저자의 소속기관, 연구방법, 통계기법, 제도적 지원여부, 연구비의 원천 등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Lan & Anders, 2000).

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

한국행정학회가 1956년 설립된 이후 무수히 많은 행정학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상당수 이루어졌다. 백완기(2005: 3)는 행정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연구주제 및 내용의 변화와 접근방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 둘째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과 방향제시를 하는 연구, 셋째 이론적 대표 연구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넷째, 하부 분야중심의 연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행정학 관련 연구경향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	분석대상 학술지	분석논문편수	분석기간	주요 분석기준과 내용
안병만(1986)	한국행정학보	291편	1967-1985	행정학의 특징, 내용변화, 학문적 성숙
김인철 (1992)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치학회보	210편	1967-1991	연구성향 및 특징, 이론적 경향, 연구방법론의 비교
하태권 (1995)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외 학술지 2종, 주요대학 학위논문	50편	1965-1995	연구영역, 연구결과, 연구과제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보	541편	1967-1995	기본사항, 연구영역, 연구방법에 의한 분류 및 분석
김태일·서주현 (1998)	한국행정학보	101편	1991-1997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발견된 연구방법론적 문제점을 실증적 분석
한태천(2000)	한국행정논집	315편	1989-2000	기본사항, 연구영역, 연구방법에 의한 분류 및 분석

저자	분석대상 학술지	분석논문편수	분석기간	주요 분석기준과 내용
목진휴·박순애 (2002)	한국정책학회보	277편	1992-2001	Laswell의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 및 연구경향을 파악 연구자 통계, 연구영역, 연구방법을 분석
이병렬·박기관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편	1989-2001	한국 지방자치 연구의 세부 연구영역과 연구방향성 파악
주상현(2002)	한국행정학보	455편	1995-2001	연구영역, 연구방법에 의한 분류 및 분석
우양호·홍미영 (2004)	지방정부연구	271편	1997-2004	연구자 수, 연구유형, 연구자 특성, 연구비 지원, 연구목적, 연구영역, 접근방법, 기법연구
권경득(2006)	한국행정학보	1164편	1967-2006	연구비지원, 연구영역, 연구방법
박순애(2007)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 한국행정학보	217편/ 1164편	1967-2006	시대별 연구과제와 연구영역
김대진·오수길 (2007)	한국행정학보	1513편	1967-2005	연구자들의 최종학위, 연구자소속, 공동 연구 비율, 공동연구자와의 관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연구대상 분류
권해수·신무섭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540편	1991-2005	연구영역
최영훈·이강준 (2009)	한국행정학보 공동저술 논문	294편	1989-2008	연구분야, 성별, 소속기관, 지도관계
최상한(2010)	SSCI학술지에 게재된 한국행정학 연구자들의 논문	72편	2000-2009	연구자 배경, 연구영역, 연구방법, 통계 분석 기법, 연구비지원, 피인용횟수

첫 번째, 비교적 대량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연구자의 특성, 연구영역, 방법론, 연구비지원 유무, 연구초점 등과 관련하여 각 시기별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한국 행정학 연구는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수요에 대응하여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예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도시행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정학 연구의 산출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연구분야가 보다 다양해졌으며,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셋째, 연구방법에서 양적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나 질적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양적연구 내에서도 고급통계기법의 활용이 늘고 있다. 넷째, 국내 대학 출신과 지방대 소속 박사의 논문게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속기관의 지역적 위치에 따라 연구분야가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소속기관이 지방에 위치한 경우 중앙정부기관보다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에는 주로 미국의 이론 및 사례를 단순히 소개·인용·분석하는 것이 주였다면 현재는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한국의 현상문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늘었다는 점에서 행정학의 한국화 시도가 늘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비교적 단기간(5-10년) 산출된 학술지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단기 특정 학술지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이나 분석방법에 있어서 차별화되어 있지만, 한 시기 전반적인 연구경향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시사점

행정학 연구경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보통 제목·키워드·초록만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자의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외에도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분류기준으로 활용하는 행정학 문헌관리 분류 시스템이 망라성과 포괄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학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들이 분류기준의 조작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념상의 분류기준만 제시할 뿐, 실제 연구물을 어떠한 기준에서 분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반복가능성 및 객관성이 취약하고 연구자의 전문분야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지방행정연구』지 게재논문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관련연구가 축적해 온 연구의 본질과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분석의 틀 또는 접근방법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지방자치론 및 지방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해당분야의 연구범위와 접근방법, 참여자의 성분 등이 다른 어떠한 학문분과보다 모호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성과를 분류하는데 요구되는 공통요소는 대체로 시간적·공간적 속성, 연구대상과 분석수준,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데이터의 특성, 행정과정과 지방행정분야 등일 것이다. 이들은 앞에서의 선행연구에서 행정학의 분석에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소들이다.

첫째,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론 및 지방행정학은 1960년대부터 2014년까지라는 다소 명확한 시간적 경계를 갖고 있다. 즉, 지방자치의 중단(1961-1991), 제6공화국 헌법과 지방의회 구성(1991-1995), 지방자치의 전면실시(1995-현재) 등 이러한 50여년의 시간대

별 흐름은 대체로 10년 주기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지방행정연구』지가 1986년부터 발간이 된 관계로 이 시점을 시작점으로 5년 단위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자치론 및 지방행정학이 지역적 현상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공간적 위상은 특정 지역이나 개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 또는 이들 사이의 연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나 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micro analysis)과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거시적 분석(macro analysis) 등 분석수준과 연계되어 있다.

셋째, 사회과학에 대한 접근방법은 전통적으로 규범적 접근방법과 실증적 접근방법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안제시에 대한 규범적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반면, 후자는 실증적 사실 확인에 따른 서술과 그에 근거한 처방을 허용한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는 양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혼합적인 연구도 있다.

넷째,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분야별 분류이다. 연구주제는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이 속한 범주인 연구대상(Locus)과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특정 지식체계 또는 이론체계(Focus)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학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인 한국행정학회는 1991년 행정학 연구자료를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학분야 학술정보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대분류체계로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은 이론, 역사, 지방의회, 지방행정, 지역개발, 지방재정,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분류를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행정학 DB에서 분류하는 분야, 즉 행정이론부터 여타의 분야를 중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세분류(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한편 연구자료는 1986년 『지방행정연구』 창간호 제1호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간된 제99호까지 총 90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통계기법은 빈도분석을 위주로 활용하였으며, 엑셀을 활용한 키워드 분석 등을 병행하였다.

<표 2> 연구의 분석 틀

분류기준	분류내용
시간 범위	- 1986-현재까지를 5년 단위로 분할
연구영역1 (대분류)	○ 지방의회 ○ 지방행정 ○ 지역발전 ○ 지방재정
연구영역2 (중분류)	- 조직: 관료제, 조직행태, 조직문화, 조직혁신 등 - 인사: 인사제도, 후생, 교육훈련 등 - 재무/예산: 예산제도·과정, 재정정책, 조세제도 등

분류기준	분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경제, 복지, 교육, 환경·에너지, R&D 정책 등 - 행정서비스: 서비스유형, 전달방식, 서비스비용, 고객만족도 등 - 시민사회: 참여, 사회적자본, 신뢰, 삶의질, 사회문제 등 - 지방행정 일반: 이론, 방법론, 지방행정사, 행정개혁, 정치경제, 부패 등
연구영역3 (세분류/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방법론, 이론, 연구활동 <li style="width: 50%;">- 조직관리 <li style="width: 50%;">- 거버넌스 <li style="width: 50%;">- NGO·NPO <li style="width: 50%;">- 가치, 원칙 <li style="width: 50%;">- 정책과정 <li style="width: 50%;">- 재난, 환경, 기술, 에너지 <li style="width: 50%;">- 지방행정 <li style="width: 50%;">- 정치 <li style="width: 50%;">- 보건, 교육, 복지 <li style="width: 50%;">- 경제 <li style="width: 50%;">- 평가 <li style="width: 50%;">- 감정, 감성 <li style="width: 50%;">- 부동산, 산업정책 <li style="width: 50%;">- 저출산, 고령화, 여성 <li style="width: 50%;">- 인터넷, 정보, 지식 <li style="width: 50%;">- 다문화 <li style="width: 50%;">- 서비스 <li style="width: 50%;">- 갈등 <li style="width: 50%;">-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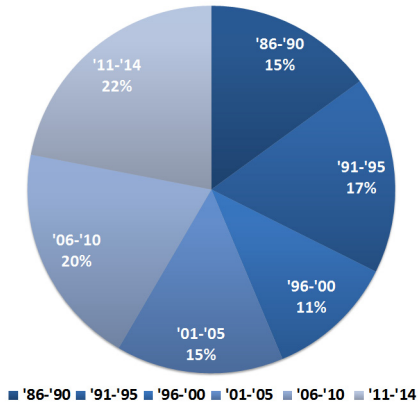
III. 『지방행정연구』지 게재논문의 내용과 특성

1. 시대별 분포 및 논문성격별 분포

지방의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무를 중앙행정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행정은 30여년간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체가 1995년도에 본격적으로 행해지면서 그 의미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에 대한 학술적이며 정책적인 내용과 특성을 다루는 『지방행정연구』지는 이보다 10년이 앞선 1986년에 1호가 발간되었으며, 시대를 거듭하며, 100호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방행정에 필요한 효율적인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부터 2014년까지 발간된 『지방행정연구』지에 대해서, 그중 누락과 손실로 인해 구하지 못하는 자료를 뺀 902개의 논문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3>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시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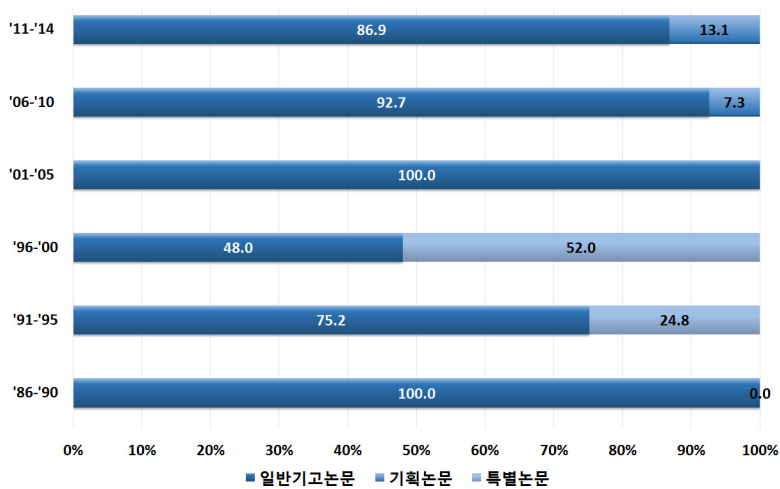
지방행정연구	합계	'86-'90	'91-'95	'96-'00	'01-'05	'06-'10	'11-'14
	902 (100%)	135 (15.0%)	157 (17.4%)	102 (11.3%)	133 (14.7%)	177 (19.6%)	198 (22.0%)



<그림 1>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시대별 분포

<표 4>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성격별 분포

지방행정연구	합계	일반(기고)논문	기획논문	특별논문
합계	902(100%)	771(85.5%)	39(4.3%)	92(10.2%)
'86-'90	135(100%)	135(100%)	0(0%)	0(0%)
'91-'95	157(100%)	118(75.2%)	0(0%)	39(24.8%)
'96-'00	102(100%)	49(48.0%)	0(0%)	53(52.0%)
'01-'05	133(100%)	133(100%)	0(0%)	0(0%)
'06-'10	177(100%)	164(92.7%)	13(7.3%)	0(0%)
'11-'14	198(100%)	172(86.9%)	26(13.1%)	0(0%)



<그림 2>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성격별 분포

지난 30여년 동안의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는 5년 단위의 분석에서 도입초기인 1986년부터 1990년에는 135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1991년부터 1995년에는 157편(17.4%)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전격 시행된 1995년이후인 1996년부터 2000년은 오히려 전체 논문이 102편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3 및 그림1 참조). 이전기간에 비해 90-95년까지 기간의 약한 증가는 초기 5년간 존재하지 않던 특별논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96-00년까지 감소는 그나마 특별논문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논문게재편수의 대량으로 감소하지 않게 되었다(표4 참조).

지방자치 민선 1기는 95년부터 98년까지 3년의 기간으로 진행되었으며, 98년 이후 민선 2기부터는 4년 임기의 정상적인 지방자치체도가 진행되었다. 97년말에 IMF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의 여파는 연구분야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학술연구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지방행정연구』지의 논문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97년의 경제위기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지방자치제가 안착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지방행정에 대한 분야의 확대와 정책적 수요의 증가는 다시금 『지방행정연구』 논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133편의 논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77편의 논문이,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198편이 게재되었다. 특히 11년부터 14년까지는 4년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문편수가 실리게 된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사라졌던 특별논문체도가 06년부터 다시 기획논문의 형태로 부활된 것과 2000년대 초반부터 하계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이 논문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일부 언급된 것과 같이 지방행정연구는 논문성격별로 일반(기고)논문, 기획논문, 특별논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분석된 902개의 논문중 일반(기고)논문은 전체적으로 771편으로 85.5%를 차지하고, 일정한 기간에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유사한 성격을 띠는 특별논문(92편, 10.2%)과 기획논문(39편, 4.3%)은 총 131편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였다.

『지방행정연구』 발간의 초기인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는 기획논문이나 특별논문이 없이 모두 일반기고논문으로 게재되었다. 한편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는 특별논문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는 특별논문이 전체 게재논문 102편 가운데 53편으로 일반논문 49편보다 많았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특별논문이 사라졌으며, 일반논문으로만 연구자가 발간되다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기획논문으로 다시 부활하여, 초기에는 일반논문에 비해 비중이 7.3%로 작았으나, 최근 4년간에는 기획논문이 26편으로 전체 비율가운데 13.1%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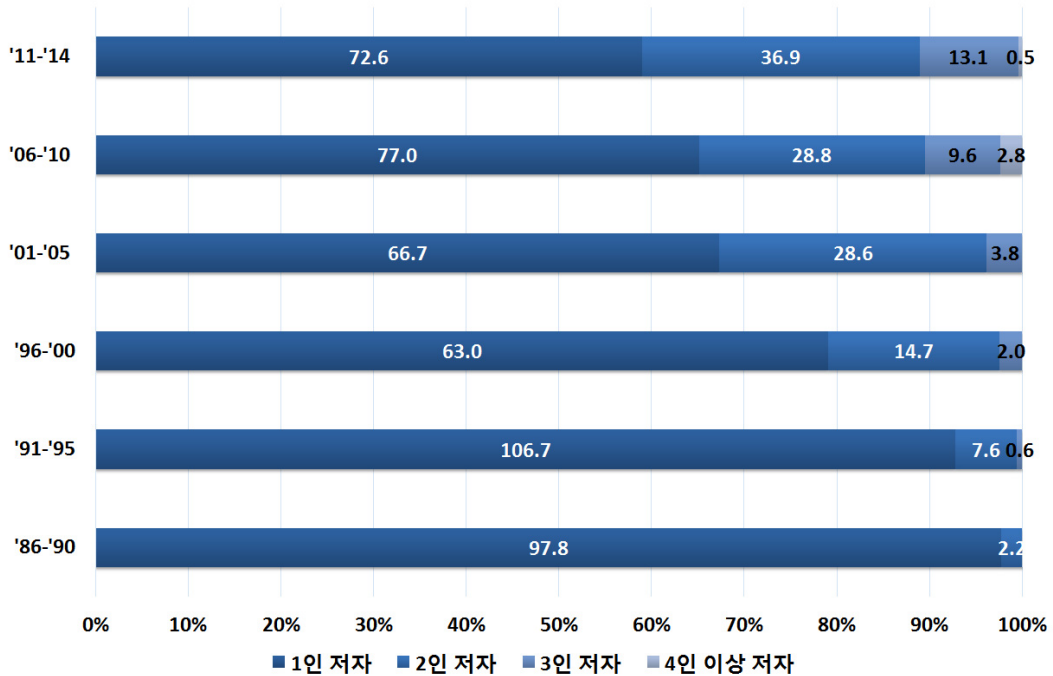
2. 공동연구자 분포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지의 저자에 대한 분석이다. 198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는 902편의 논문중에 72.4%를 차지하는 653편이 논문이 1인 저자에 의하여 발간되었으며, 약 21.3%의 192편의 논문이 2인저자, 51편(5.7%)와 6편(0.7%)의 논문이 각각 3인 저자와 4인 저자에 의해 게재되었다. 본 분석을 행한 2015년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동연구 비율에 따른 분석결과가 매우 평이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각 시대별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특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학술연구자에 대한 연구실적 평가제도의 영향이 밀접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5>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공동연구 비율

구분	합계	'86-'90	'91-'95	'96-'00	'01-'05	'06-'10	'11-'14
합계	902(100%)	135(100%)	157(100%)	102(100%)	133(100%)	177(100%)	198(100%)
1인 저자	653(72.4%)	132(97.8%)	144(91.7%)	85(83.3%)	90(67.7%)	104(58.8%)	98(49.5%)
2인 저자	192(21.3%)	3(2.2%)	12(7.6%)	15(14.7%)	38(28.6%)	51(28.8%)	73(36.9%)
3인 저자	51(5.7%)	0(0%)	1(0.6%)	2(2%)	5(3.8%)	17(9.6%)	26(13.1%)
4인 이상	6(0.7%)	0(0%)	0(0%)	0(0%)	0(0%)	5(2.8%)	1(0.5%)

동 연구지가 발간되기 시작에 초기인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에는 전체 135편의 논문중에 1인 저자로 게재된 논문이 132편으로 97.8%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2.2%의 3편의 논문도 오직 2인의 공동 저자에 의해 게재된 것이다. 3인 저자와 4인 이상의 저자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1인 저자 중심의 논문게재 방식은 1991년부터 1995년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도 1인 저자의 비율이 85편 83.3%를 넘었고, 2인 저자도 15편 14.7%이며, 3인 저자는 2편(2%)으로 매우 미미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학술연구자에 대한 실적평가방식이 논문게재 편수를 중심으로 행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공동저자와 관련된 분포는 1인 저자 중심에서 다자 중심의 연구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전체 논문편수 133편중에 1인 저자 논문이 90편 67.7%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2인 저자 논문은 38편 28.6%로 증가하여, 전 시기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의 14.7%의 2배 가까이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4인 이상의 저자는 없었다.



〈그림 3〉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공동연구 비율

지방자치제도의 진척은 지방행정 정책에 대한 학술연구의 확대를 야기시켰고, 학술연구자에 대한 논문게재편수 중심의 평가제도 도입은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참여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방행정연구』가 2007년도부터 학술연구재단 등재지가 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와 2011년부터 2014년의 시기에서는 1인 저자의 비율이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3인 저자(17편, 9.6%)와 4인 이상 저자(5편, 2.8%)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4년인 2011년부터 2014년에는 연구계의 자기반성에 의해 4인 이상의 저자는 다시 감소하고 2인 저자의 비율(73편, 36.9%)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 정책분야별 분포

『지방행정연구』는 총 902편의 논문 중에서 각각의 논문을 크게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주요한 정책분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들어가지 않는 분야를 기타 정책분야로 구분하였다. 1986년부터 2014년까지 게재된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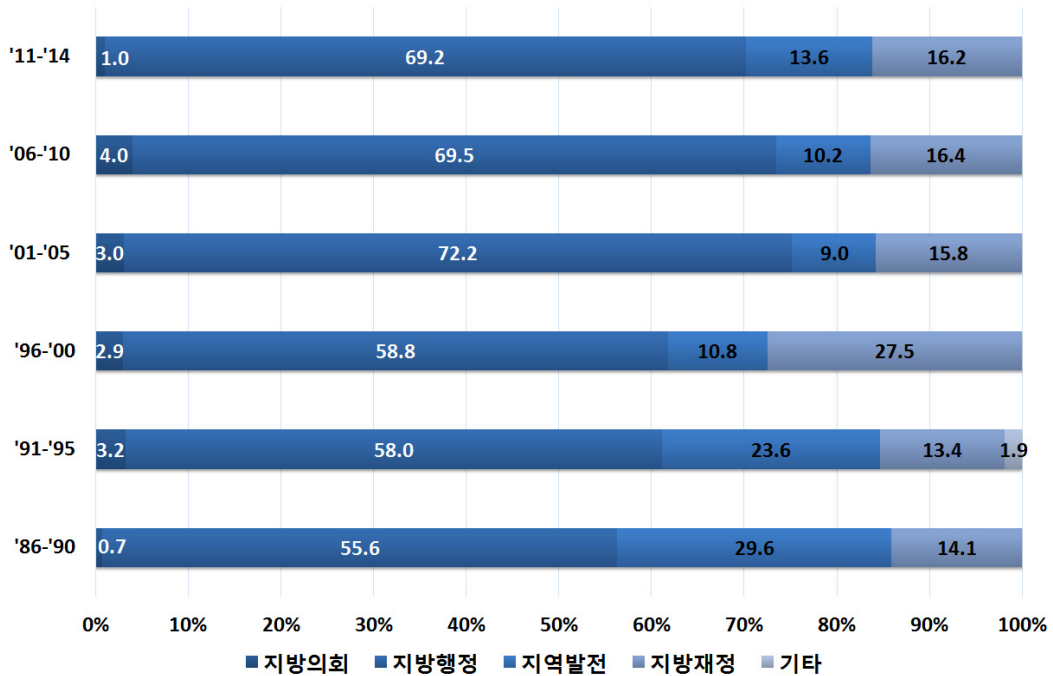
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행정 분야로 582편의 논문으로 64.5%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정책분야는 각각 150편(16.6%)와 145편(16.1%)이었다. 지방의회 정책분야는 22편이 논문으로 2.4%를 차지하였고, 4가지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정책분야는 3편(0.3%)로 매우 미미하였다.

<표 6>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정책분야별 분포

구분	합계	'86-'90	'91-'95	'96-'00	'01-'05	'06-'10	'11-'14
합계	902(100%)	135(100%)	157(100%)	102(100%)	133(100%)	177(100%)	198(100%)
지방의회	22(2.4%)	1(0.7%)	5(3.2%)	3(2.9%)	4(3%)	7(4%)	2(1%)
지방행정	582(64.5%)	75(55.6%)	91(58%)	60(58.8%)	96(72.2%)	123(69.5%)	137(69.2%)
지역발전	145(16.1%)	40(29.6%)	37(23.6%)	11(10.8%)	12(9%)	18(10.2%)	27(13.6%)
지방재정	150(16.6%)	19(14.1%)	21(13.4%)	28(27.5%)	21(15.8%)	29(16.4%)	32(16.2%)
기타	3(0.3%)	0(0%)	3(1.9%)	0(0%)	0(0%)	0(0%)	0(0%)

한편 지방의회 분야는 지방자치 선거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등 지방자치의 주요한 구성요소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연구지에서 지방의회를 다루는 논문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며, 이는 198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도입,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원 역량강화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대안 등이 제시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지방의회와 관련한 연구의 추동을 위해서라도 동 연구지가 지방의회 정책분야의 기획논문을 다루거나 혹은 논문발표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의 발간초기인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전체 135편중 40편(29.6%)로 비중있게 다루어지다가 시기가 거듭될수록 축소되었다. 동 분야의 논문은 2011년부터 2014년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전체 198편의 논문중 27편으로 13.6%로 절반이하로 감소되었다. 지방재정 분야는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해인 1997년이 속해있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에 전체 102편 가운데 28편으로 27.5%로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비율이 14-16%의 고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직, 인사, 지방행정일반을 다루는 지방행정 정책분야는 발간초기인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시기에 55.6%의 비율로 시작하여, 약간의 변동을 거친 후 2001년 이후부터는 70%에 이르는 논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행정연구지의 발간을 맡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특성과 아울러 지방자치의 진척에 따른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세분화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정책분야별 분포

4. 주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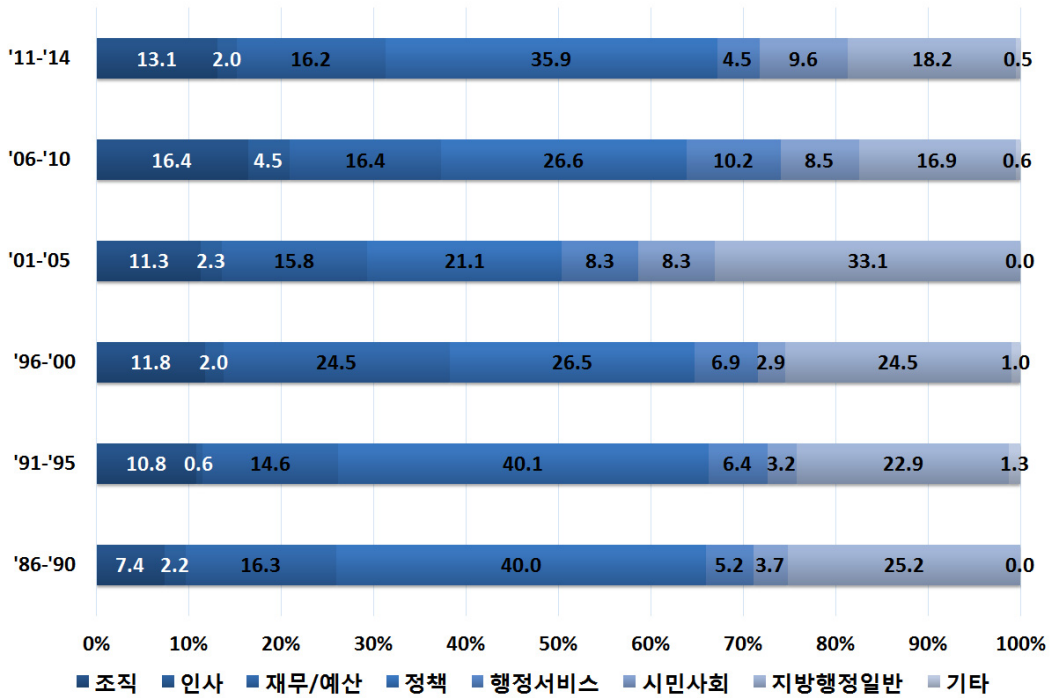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의 정책분야별로 구분된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방의회를 더욱 세분화하여, 조직, 인사, 재무·예산, 정책, 행정서비스, 시민사회, 지방행정일반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전체 902편의 논문 중에서 다루어진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정책 290편(32.2%), 지방행정일반 205편(22.7%), 재무·예산 152편(16.9%), 조직 109편(12.1%), 행정서비스와 시민사회가 각각 62편(6.9%)와 58편(6.4%)이며, 인사는 21편(2.3%)과 기타 5편(0.6%)이었다.

<표 7> 지방행정연구 게재 논문주제에 대한 중분류

구분	합계	'86-'90	'91-'95	'96-'00	'01-'05	'06-'10	'11-'14
합계	902(100%)	135(100%)	157(100%)	102(100%)	133(100%)	177(100%)	198(100%)
조직	109(12.1%)	10(7.4%)	17(10.8%)	12(11.8%)	15(11.3%)	29(16.4%)	26(13.1%)
인사	21(2.3%)	3(2.2%)	1(0.6%)	2(2%)	3(2.3%)	8(4.5%)	4(2%)
재무·예산	152(16.9%)	22(16.3%)	23(14.6%)	25(24.5%)	21(15.8%)	29(16.4%)	32(16.2%)
정책	290(32.2%)	54(40%)	63(40.1%)	27(26.5%)	28(21.1%)	47(26.6%)	71(35.9%)
행정 서비스	62(6.9%)	7(5.2%)	10(6.4%)	7(6.9%)	11(8.3%)	18(10.2%)	9(4.5%)
시민사회	58(6.4%)	5(3.7%)	5(3.2%)	3(2.9%)	11(8.3%)	15(8.5%)	19(9.6%)
지방행정 일반	205(22.7%)	34(25.2%)	36(22.9%)	25(24.5%)	44(33.1%)	30(16.9%)	36(18.2%)
기타	5(0.6%)	0(0%)	2(1.3%)	1(1%)	0(0%)	1(0.6%)	1(0.5%)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정책분야이며,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시기에 40%에서 이후 시기별로 다소 감소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근에도 35.9%를 차지하여, 지방행정연구의 중요한 논문주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분야에서도 정책학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행정일반은 20-30% 안팎의 비율이 지속되며, 재무·예산은 15-6%를 차지하고, 조직분야는 10-16%를 차지하며, 3가지 논문주제별로 모두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을 거쳐오면서,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하나의 부서에서 관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연구에서는 조직분야의 논문의 비율은 12.1%를 보이는 반면 인사와 관련된 연구는 2%대로 매 시기 2-4편이며, 이는 매년 1편정도의 논문밖에 게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정부 최고위 관료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인사 분야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연구의 기획논문이나 해당분야의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지방행정연구 게재 논문주제에 대한 중분류

논문주제에 대한 중분류로 조직, 인사, 재무·예산, 정책, 행정서비스, 시민사회, 지방행정 일반 및 기타로 분류한 것에 더불어 다음은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표 8> 참조). 중분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던 정책분야는 사회 전분야에 걸치듯 다양한 세부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지방행정일반은 이론, 방법론, 행정개혁 등으로 크게 분류되었으며, 재무·예산도 재정과 조세가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한다. 행정서비스는 여론·민원·의식조사와 전달체계, 행정정보 및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되고, 시민사회는 주민·공동체, 주민참여, 사회적 자본 등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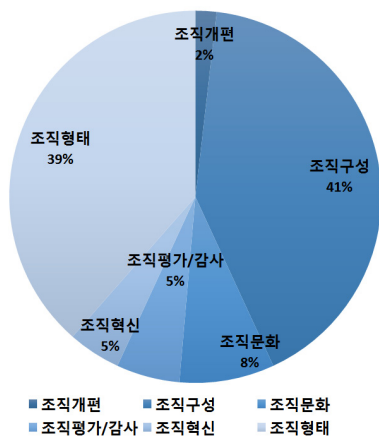
각각의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행정의 대표적 업무로서의 조직과 인사에서 조직은 조직구성(42%), 조직형태(39%), 조직문화와 조직평가가 각각 8%와 5%를 차지하며, 조직혁신도 5%의 비율을 보인다. 인사는 사람의 배치와 관련된 인사 57.1%, 선거가 38.1%, 후생 4.8%의 비율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대표적 업무로서의 재무·예산은 재정이 절반을 넘는 56%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조세가 26%로 전체의 1/4이 넘고, 기타 예산, 회계, 재무 등이 각각 9%, 3%, 2%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비율이 8:2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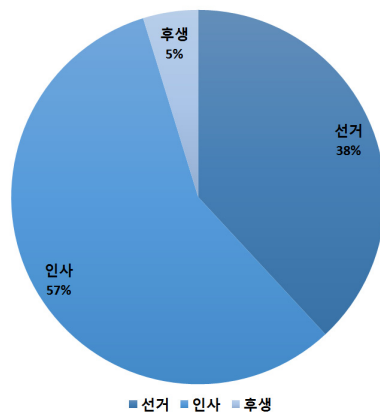
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향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지방행정연구 게재 논문주제에 대한 세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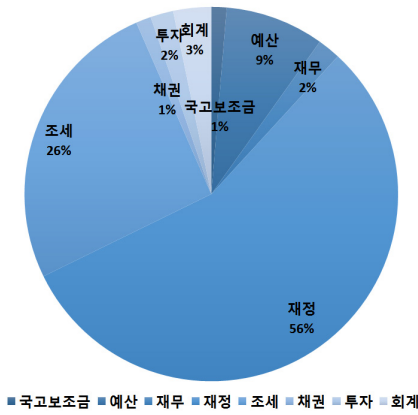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직	조직개편 2(1.8%), 조직구성 45(41.3%), 조직문화 9(8.3%), 조직평가·감사 6(5.5%), 조직혁신 5(4.6%), 조직형태 42(38.5%)
인사	선거 8(38.1%), 인사 12(57.1%), 후생 1(4.8%)
재무/예산	국고보조금 2(1.3%), 예산 13(8.6%), 재무 3(2%), 재정 85(55.9%), 조세 39(25.7%), 채권 2(1.3%), 투자 3(2%), 회계 5(3.3%)
정책	R&D 2(0.7%), 경영 4(1.4%), 경제 22(7.6%), 교육 16(5.5%), 교통 3(1%), 문화 4(1.4%), 범죄·안전 3(1%), 보건/생활 4(1.4%), 복지 22(7.6%), 산업 25(8.6%), 소방 2(0.7%), 시설·경관 4(1.4%), 아동·출산·육아 4(1.4%), 에너지 2(0.7%), 외교 2(0.7%), 이론 2(0.7%), 인구 11(3.8%), 재해·방재 8(2.8%), 전산 1(0.3%), 주거 3(1%), 지역발전·개발 72(24.8%), 토지 16(5.5%), 행정구역 28(9.7%), 환경 30(10.3%)
행정서비스	서비스유형 9(14.5%), 여론·민원·의식조사 31(50%), 전달체계 12(19.4%), 행정정보 10(16.1%)
시민사회	사회적자본 9(15.5%), 주민·공동체 32(55.2%), 주민참여 17(29.3%)
지방행정일반	방법론 70(34.1%), 이론 78(38%), 정치 5(2.4%), 조례/법 8(3.9%), 지방행정사 21(10.2%), 행정개혁 23(11.2%)
기타	기타 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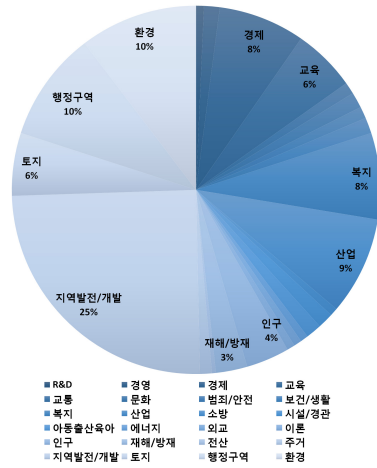
<그림 6>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주제별 세부분류: 조직



<그림 7>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주제별 세부분류: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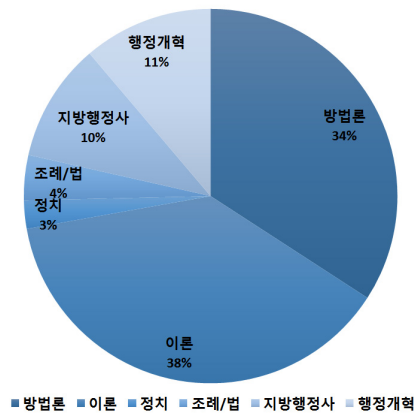


<그림 8>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주제별 세부분류: 재무·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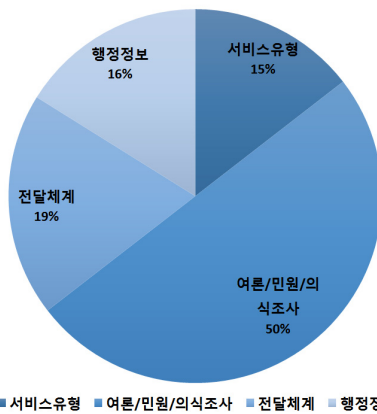


<그림 9>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주제별 세부분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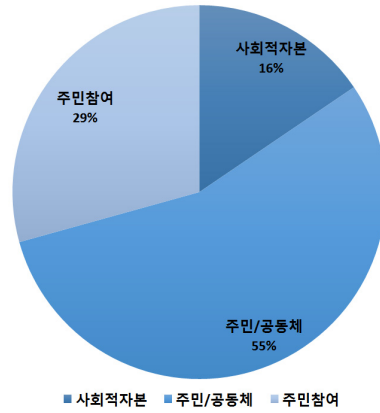
한편 한국행정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회들이 존재하여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의 성과가 게재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연구에도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연구 논문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지역발전·개발(25%), 환경(10%), 행정구역(10%), 산업(9%), 경제(8%), 복지(8%), 교육(6%) 등이었다.



<그림 10>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주제별 세부분류: 지방행정일반



<그림 11>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주제별 세부분류: 행정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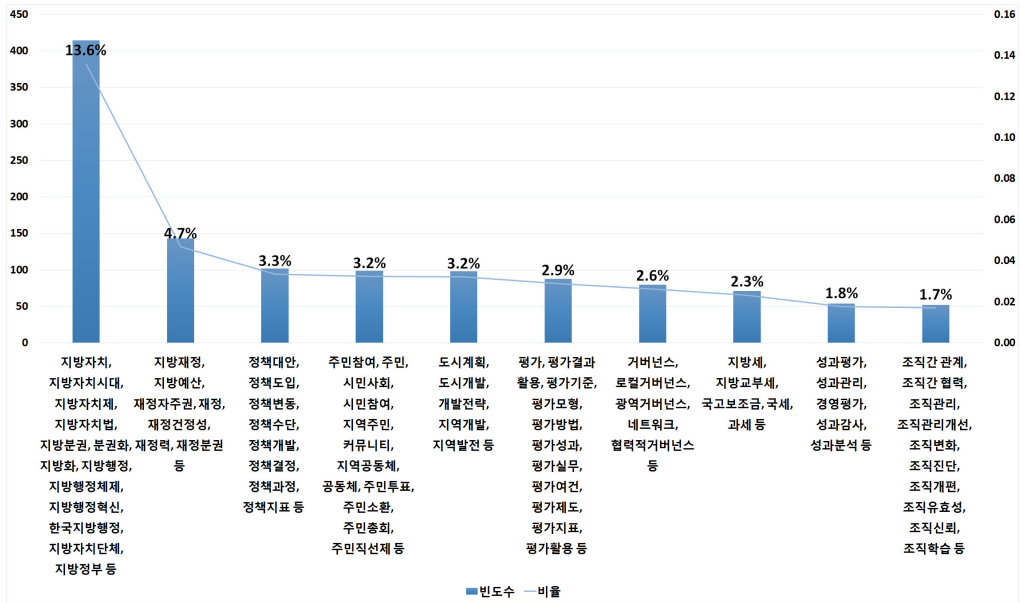
<그림 12> 『지방행정연구』 게재논문의 주제별 세부분류: 시민사회

또한 지방행정일반과 행정서비스 및 시민사회에 대한 논문들의 분포를 보면, 지방행정일반은 이론과 방법론이 각각 38%와 34%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어느 시기나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행정개혁은 11%, 최근 들어 이슈가 된 지방행정사는 10%, 조례/법 4%, 정치 3%의 비율을 보였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여론·민원·의식조사가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행정전달체계 19%, 행정정보 16%, 서비스유형 15% 등이 고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분야는 주민/공동체가 55%, 주민참여 29%, 사회적 자본 16%를 보이고 있다.

5. 게재논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에 수록된 논문들에 사용된 키워드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키워드는 1편의 논문에 일반적으로 4-5개가 존재한다. 시기별로는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는 논문도 있었으나, 빈도분석에 의한 상위 10개 분류를 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분석결과 동 연구지에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행정, 지방정부 등의 지방행정과 관련한 개념어들이 415개(13.6%)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지방행정연구 논문들에 사용된 키워드 분석(상위 10개 분류)

또한 지방재정, 지방예산, 재정, 재정분권 등의 지방재정 관련한 용어가 143개(4.7%), 정책대안, 정책개발, 정책지표 등 정책과 관련한 키워드가 102개(3.3%)로 많이 사용되었다. 주민, 주민참여, 커뮤니티, 공동체, 시민참여 등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관련한 키워드가 99개(3.2%), 도시개발, 지역개발, 지역발전 등의 지역발전 관련한 키워드가 98개(3.2%)였다. 이하 평가, 거버넌스, 지방세, 성과관리 및 조직관리 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6위부터 10위를 차지하였다.

<표 9> 지방행정연구 논문들에 사용된 키워드 분석(상위 10개 분류)

순위	내용	빈도수	비율
1	지방자치,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분권화, 지방화, 지방행정, 지방행정체제, 지방행정혁신, 한국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등	415	13.6%
2	지방재정, 지방예산, 재정자주권, 재정, 재정건정성, 재정력, 재정분권 등	143	4.7%
3	정책대안, 정책도입, 정책변동, 정책수단, 정책개발, 정책결정, 정책과정, 정책지표 등	102	3.3%
4	주민참여, 주민, 시민사회, 시민참여, 지역주민, 커뮤니티, 지역공동체, 공동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총회, 주민직선제 등	99	3.2%
5	도시계획, 도시개발, 개발전략, 지역개발, 지역발전 등	98	3.2%

순위	내용	
6	평가, 평가결과 활용, 평가기준, 평가모형, 평가방법, 평가성과, 평가실무, 평가여건, 평가제도, 평가지표, 평가활용 등	88(2.9%)
7	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광역거버넌스,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 등	80(2.6%)
8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세, 과세 등	71(2.3%)
9	성과평가, 성과관리, 경영평가, 성과감사, 성과분석 등	54(1.8%)
10	조직간관계, 조직간협력, 조직관리, 조직관리개선, 조직변화, 조직진단, 조직개편, 조직유효성, 조직신뢰, 조직학습 등	52(1.7%)

통상적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영역에서 연구분야를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으로 3분화시키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3분화된 연구분야 분류체계가 이러한 연구경향을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조직체계와 그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 전문연구기관이자 동 연구지의 발간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역시 이러한 분야별 분화된 접근체계를 지니고 있으나, 키워드 분석결과 중 상위를 차지하는 ‘정책’, ‘주민’ 및 ‘공동체’ 등의 대한 주제어는 이러한 분야별 접근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이 융합된 연구분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주제들은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 향후 더욱 연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사점은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적절한 연구주제의 분류체계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지방행정연구』지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의 내용과 성격을 그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PAR과 한국 행정학 분야의 다른 학술지 등의 선행분석 결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흐름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흐름 하에서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여 게재논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연구지에 게재된 90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기본사항, 연구영역에 대해 키워드 분석 등의 세부적 분석을 통해 학술지의 질과 연구경향을 파악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수백편의 분석대상 논문자료들을 다루면서 양적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깊이있게 논문을 하나씩 리뷰하여 분석하는 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고 방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아울러 『지방행정연구』지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일반적인 연구동향이라고 일반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분석결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라는 분야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와 주제어를 포함하는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이러한 정교한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행정의 환경변화 따라 특히 1998년 이후 학술지에 제출되어 게재되는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실적평가제가 도입된 이후 공동연구가 늘고 있어, 관련 학계와 연구자들간의 논문발표를 위한 경쟁적 연구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논문발표는 급증하였고, 창간된 지 벌써 30년이 지난 『지방행정연구』지는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에서 관련분야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독보적인 창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학술진흥재단의 유력한 등재학술지로서 지방자치론 및 지방행정학 분야에 주요 논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는 학계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수요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이 동 연구지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 등 관련학문 분야에서 하나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자리잡았고 향후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및 지방의회·기타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1년 이전 약 55%에 있던 자치행정 분야의 게재논문이 이후 약 70%로 확대되었고,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지방재정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게재논문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의 진척에 따른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세분화되어 온 결과이며, 동시에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가 중요한 연구분야로 자리를 잡아왔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최근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 지역간 격차의 심화, 지방재정의 위기, 지방자치 민선 6기를 맞이한 지방자치의 성과에 관한 논쟁 등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어려움이 중첩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학 및 정책학의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행·재정 및 지역발전 등의 분야에서 보다 통섭적이고 다양한 시각과 분야에서 차별화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게재논문의 주제별 및 키워드의 범주분석에서 밝혀진 연구동향은 최근 이론보다는 정책분야의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키워드 분석결과 정책의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은 의외로 많지 않지만 해당분야의 이슈는 최근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등이 상

당히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분야의 논문이 많다는 사실은 동 연구지가 순수한 이론적인 논의의 장이라기 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조망하고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지의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게재된 논문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상향식 지방자치, 민관 거버넌스 등의 언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선 6기를 맞은 지방자치가 이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적인 방식보다는 민과 관이 조화되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동향들을 종합해볼 때, 동 연구지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분야의 권위적인 정책연구지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자치의 담론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전반에서 더 시사적이며 다양한 정책이슈들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보다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과 정책학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다양한 새로운 담론들을 융합시킴으로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학문적 위상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실제적인 정책이슈를 폭넓게 다루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동 연구지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후속연구는 전술한 연구방법 등 다양한 한계들을 극복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대분류와 중분류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분석 등의 다양한 기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보다 다양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을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는 대-중-소의 분류보다 더 세련되고 정확한 분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헌법개정, 신집권화 등 국가적 쟁점에 있어서 지방행정연구가 대응해야할 이슈제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 본다.⁴⁾

4) 본 내용은 본 논문의 심사의견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이러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저자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 대분류의 지방의회가 중분류의 어떤 내용들과 연계를 갖는지 등 대분류 및 중분류간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 한·미 양국 행정학계의 비교 외에 국내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학회의 논문집과 비교를 제시하지 못한 점,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 등 본 논문에서 취하는 대분류 체계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보다 세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견에 대해 저자들은 다시 한번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며, 한편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권경득. ((2006). 한국행정학보 게재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50년: 1956-2006』: 617-640. 조명문화사.
- 권해수·신무섭. (2006). 기획논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영역별 분석 및 차별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281-293.
- 김대건·오수길. (2007). 한국행정연구의 연구자 특성과 거버넌스 연구영역 변화분석: 한국행정학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1): 227-245.
- 김인철. (1992). 한국정책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성격: 정치학회보와 행정학보 게재논문 분석. 『한국행정학보』, 26: 4, 1049-1066.
- 김태일·서주현. (1998).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방법론적 분계점 분석. 『한국행정학보』, 32(3): 199-215.
- 목진휴·박순애. (2002). 한국정책학회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10)1, 319-332.
- 박순애. (2007). 행정학 연구분야의 시대적 적실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321-344.
- 백완기. (2005). 『한국행정학 50년: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나남출판.
- 안병만. (1986). 한국행정학회 30년사(1956-1986): 행정학보 속에 나타난 한국행정학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20: 2.
- 우양호·홍미영. (2004). 지방정부연구의 실증적 분석(1997-2004): 행정학 분야 주요 학술지와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8(2): 75-105.
- 이가중·윤석경. (1996). 학술지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0(2): 97-112.
- 이병렬·박기관. (2002).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기고논문(1989-2001)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3-41.
- 정세욱. (1995). 『지방행정학』. 법문사.
- 주상현. (2002).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 최상한. (2010). SSCI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행정학 연구자들의 논문경향: 최근 10년(2000-2009)간의 지적 긴장과 지적 편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2): 89-116.
- 최영훈·이강준. (2009). 학술논문 공동저술 유형분석: 한국행정학보(1989-2008)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3): 51-72.
- 하태권. (1995).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1463-1483.

- 한태천. (2002). 한국행정논집 분석: 행정학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2(4): 781-802.
- Dimock. Marshall E. (1936). The Meaning and Scop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ohn M. Gaus, Leonard D. White and Marshall E. Dimock(eds), *The Frontiers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saak. Alan C. (1981). *Scope and Method of Political Science*, Third edition. Ontario, Ill.: The Dorsey Press.
- Lan, Zhyong & Anders, Kathleen K. (2000). A Paradigmatic View of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dministration & Society*, 32(2): 138-165.
- Newland, Chester A. (2000). Th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Ongoing Struggle for Connectedness. *PAR*, 60(1): 20-38.
- Perry, James L. & Kraemer, K. L. (1986). Research Methodolog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5-1984. *PAR*, 46(3): 215-226.
- Riggs. Fred W. (1964). Administration in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heory of Prismatic Society*. Boston: Houghton Mifflin Co.
- Riggs. Fred W. (1964). *The Ecology of Development*, Comparative Administration Group.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 Stallings, Rebert A & Ferris, James M. (1988).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Work in PAR, 1940-1984. *PAR*, 48(1): 580-586.
- Streib, Gregory & Roch, Christine. (2005). Strengthening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Identifying Boundaries and Horiz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1-2): 37-55.
- Veron Van Dyke. (1978). *Political Science: A Philosophical Analysi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W. (1953). The Study of Administration in Dwight Waldo(ed.), *Ideas and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김 건 위: “DEA를 통한 지방정부 정보화 상대적 효율성 측정: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로 명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2004)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3.0지원센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공동체, 정부3.0, 재난 및 안전, 정보화 측정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의 동태적 측면에 관한 연구(2013), SD를 활용한 성과지향적 평가에 관한 연구(2013),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2014),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예산의 운용 방향(2014) 등이 있다(cigma@krila.re.kr).

최 인 수: “MBR에서 표면활성제의 생물학적 분해와 질산화의 이산화탄소와 산소 온라인 측정을 통한 평가”로 베를린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2005)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통일연구센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공동체, 환경 및 에너지정책, 재난 및 안전, 지방의회와 정치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안전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연구(2013), SD를 활용한 성과지향적 평가에 관한 연구(2013),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기본소득의 지역 영향성에 대한 연구(2014) 등이 있다(ischoi@krila.re.kr).

전 대 욱: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박사논문: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009)하였고 영국 Univ. of Southampton에서 British Chevening Scholar로 수학.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조사부장으로 재직 중.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편집이사를 역임, 현재 동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역경제 및 재지역화 등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시스템의 회복성(Resilience)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2013) 등이 있음(dujeon@krila.re.kr).